

해암(海巖) 유경종(柳慶種) 가문의 인장(印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김 동 준**

목 차

- I. 머리말
- II. 『해암고(海巖稿)』 수록, 유경종(柳慶種)의 인장(印章) 관련
증언
- III. 유경종(柳慶種) 가문의 인장(印章) 활용 양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 한국 문화에서 인장(印章)은 흥미로운 대상인데도 아직은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18세기 경기도 안산(安山)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경종(柳慶種)과 그 주변인물에 집중하여 인장이 활용되는 한 양상을 살폈다.

제2장에서는 유경종의 『해암고(海巖稿)』를 통해 인장 관련 증언들을 조사했다. 그는 20대에서 60대까지 인장에 대한 기록을 비교적 풍부하게 남겼다. 그의 인장 취향은 시서화(詩書畵) 및 전각(篆刻)을 바탕으로 삼았으며 특히 처남인

* 이 논문은 제62회 국어국문학회 전국학술대회(2018. 5. 25-26)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귀한 질정을 해주신 김영진 교수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696)

** 金東俊,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투고일 : 2018. 11. 11. 심사완료일 : 2018. 12. 4. 게재확정일 : 2018. 12. 20.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77>

강세황과의 예술적 교감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행적과 증언을 통해 파악된 내용은 유경종의 주변에서 향유된 그림과 인영집(印影集), 현전 실물 인장 등을 해석하는 데 소중한 단서가 되었다.

제3장에서는 유경종의 가문에서 인장이 실제로 활용된 양상을 고찰했다. 첫째,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에 주목하여 유경종을 위시한 주변인물들이 활발하게 인장을 사용했음을 증명했다. 둘째, 인영집인 『해암인소(海巖印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귀중한 책자는 강세황이 유경종에게 선사한 인장 236방을 낱인한 인보(印譜)를 원본으로 하여 유경종의 오촌 조카인 유신(柳愷)이 임모한 것이다. 수록된 인장과 서발문을 통해, 그들이 소장한 인장의 실제와 인장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물로 전하는 인장을 조명했다. 진주유씨 가문이 안산시의 성호기념관에 위탁한 약 29방의 인장 안에는 위에서 조사한 그림 및 인보에 사용된 그 실물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시화첩과 인보 그리고 인장 실물을 두루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사례가 바로 18세기 유경종 가문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대 조선에서 인장이 향유되는 현장을 보다 선명히 조명해 볼 수 있었다.

핵심어 | 유경종(柳慶種), 강세황(姜世晃), 유신(柳愷), 인장(印章), 인보(印譜), 『해암인소(海巖印所)』,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I. 머리말

18세기 경기도 안산(安山)에서 성행한 학술, 문화, 예술은 당대의 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사에서도 기념할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을 중심으로 하는 성호학파(星湖學派)의 수준 높은 학술,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과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를 배출한 조선 화단에서의 위상, 그리고 무신란(戊申亂: 1728년, 일명 李麟佐亂)의 여파로 인해 안산에 정착한 문인군(文人群)의 예술이 18세기 안산을 특별한 명소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다.¹⁾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주시할 줄기 하나가 한국 인장(印

1) 18세기 안산 지역 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동준, 「18세기 안산지역 문인들의

章)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당시 안산권 문인들의 비중인데, 그중 유경종 가문의 사례는 자료의 풍부함과 희소성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개괄컨대 1740~1760년대의 안산에서 인장 문화와 관련시켜볼 수 있는 문인군은 대략 두 갈래이다. 진주유씨(晉州柳氏) 가문의 유경종(柳慶種: 1714-1782), 유경용(柳慶容: 1718-1753), 유경농(柳慶農: 1724-1750)과 이 가문의 사위였던 강세황(1713-1791: 유경종의 처남), 박도맹(朴道孟: 유경용의 처남) 그룹과, 성호 이익이 속한 여주이씨(驪州李氏) 가문의 이용휴(李用休: 1708-1782), 이재덕(李載德: 1711-1768), 이현환(李玄煥: 1713-1772), 이철환(李嘉煥: 1722-1779) 그룹이 이들이다. 전자는 주로 진주유씨 가문의 종택이 있었던 안산의 부곡(釜谷: 일명 정재골)을 근거지로 삼았고 후자는 부곡 남쪽 약 10리쯤에 위치한 성촌(星村)=성고(聲阜)를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또한 이들 모두는 무신난의 직간접적 피해자로서 정치적 연대감이 짙었으며, 비노론(非老論) 계열의 지식인으로서 안산으로 밀려난 사정이 유사했다. 강세황은 1744년경에 온 가족을 이끌고 안산으로 이주하여 이후 30년간 처가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재덕과 이현환도 1750년 직후에 성고로 이주하여 이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쳤다. 이용휴(1708), 이재덕(1711), 강세황(1713), 이현환(1713), 유경종(1714) 등이 비슷한 연배로서 친분 관계를 맺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그들의 예술 활동 중에서 이번 기회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면은 집단적인 인장 활용 양상이다. 단적인 예로, 이용휴의 <도장설(圖章說)>, 강세황의 <도서(圖書)>, 이현환의 <도장설(圖章說)> 등은 인장에 대한 견해를 구체화한 산문인데 이는 인장을 향한 안산권 문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대변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단원아집(檀園雅集)』, 『섬사편(剡社篇)』 등의 시화첩과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같은 시화권(詩畫卷)에는 당시의 인장이

교유와 雅會],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편, 『安山市史』 4,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170~255쪽 참조.

풍부하게 찍혀 있어서 시서화(詩書畫)와 인장(印章)을 연결시키려 했던 현장을 실감하게 만든다. 18세기 중반의 안산은 곧 국내 인장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으로서 이에 합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연구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에서의 인장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오세창의 『근역인수(槿域印藪)』²⁾에 기재된 <채수서명목록(採收書名目錄)>만 보더라도, 허균(許筠), 김상헌(金尙憲), 홍석귀(洪錫龜), 윤두서(尹斗緒) 각각의 『군옥첩(群玉帖)』, 허목(許穆)의 『도서첩(圖書帖)』, 권섭(權燮)의 『옥소첩(玉所帖)』, 이정영(李正英)의 『정쾌청완(靜几淸玩)』[이상 18세기 이전] 이래의 인영집(印影集) 수십 종이 실려 있어서 인장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시회와 도록을 넘어 학술적 검토로 연결된 국내의 연구 결과가 그다지 풍성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장사의 개략을 밝힌 김양동과 성인근의 성과,³⁾ 박철상이 수차 제출한 장서인(藏書印)과 인장 관련 보고,⁴⁾ 장서인·장서가에 대한 구자훈의 박사학위논문⁵⁾ 등은 한국 인장 연구의 선행 성과로서 그 공로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사 중에서 특히 본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정은진의 논문⁶⁾을

2) 吳世昌 편저, 『槿域印藪』, 국회도서관, 1968.

3) 김양동, 「韓國 印章의 歷史」,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2006; 성인근, 『한국인장사』, 보고사, 2013. 중국과 일본의 관련 논저, 그리고 국내의 도록 등에 대해서는 위 성인근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박철상, 「임진왜란과 장서인 보급」, 『문헌과해석』 18호, 2002; 「미수전과 낭선군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19호, 2002; 「만권루와 이하곤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0호, 2002; 「정조와 경화세족 장서인」, 『문헌과해석』 23호, 2003; 「문인전각가의 등장과 장서인」, 『문헌과해석』 25호, 2003; 「자하 신위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9호, 2004; 「표암 강세황가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6호, 2004; 「조선 후기 문인들의 인장에 대한 認識의 一面」, 『한문교육연구』 35호, 2010.

5) 구자훈, 「조선조의 장서인·장서가 연구: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6) 정은진, 「18세기 근기(近畿) 지식인의 인장(印章) 관련 담론 연구」, 『한국학논집』 69호, 2017, 45~92쪽. 이에 앞서 김영진이 2013년의 한국한문화회에서 「표암 강세황의

꿈을 수 있다. 이 논고는 강세황의 <도서>, 이용휴의 <도장설>, 이현환의 <도장설>, 이복휴(李福休)의 <도서설(圖署說)>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경종의 『해암인소(海巖印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인장과 관련하여, ‘완물상지(玩物喪志)의 대상이나 서화의 부속품 정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 매개로 삼았다’는 요지도 경청할 만한 결론이다. 나아가 향후의 과제로서 해암 유경종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던 바,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사적 요청에 호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 해도 이제 유경종 가문의 사례가 왜 별도의 연구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해암인소(海巖印所)』[성호기념관 소장, 유경종이 강세황에게 구한 인장 236방의 인영집]
- (나) 진주유씨 가전(家傳)의 인장 실물 29방[성호기념관 소장]
- (다)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등의 현전 그림
- (라) 『해암고(海巖稿)』[유경종의 문집, 인장 관련 기록이 산재함]

(가)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매우 이른 시기의 인영집이며, (나)는 당시에 사용했던 실물 일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인장이다. (다)는 이들이 얼마나 인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당시의 그림이며, (라)는 그 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 곧 유경종의 증언을 비교적 풍부하게 담고 있는 문집이다. 인각의 기법과 인장의 수준 등을 차치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한 가문이 (가)~(라)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한 예가 현재로서는 매우 드물다. 그 희소성에 더하여 강세황이라는 예인이 여기에 핵심인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유경종 가문의 사례는 18세기 인장 문화의 현장과 진행 지점을

생애와 예술활동 관련 자료 습유」를 발표하여 『海巖印所』 등의 자료를 소개하였다.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것이라 판단된다.

II. 『해암고(海巖稿)』 수록, 유경종(柳慶種)의 인장(印章) 관련 증언

유경종의 대규모 저작인 『해암고(海巖稿)』⁷⁾에는 인장, 전각, 서체, 서화 관련 자료들이 적지 않다. 그가 지은 필기류 저작 『파적(破寂)』을 검토했으나 서화에 대한 몇몇 증언 외에 인장과 직결된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⁸⁾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해암고』를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인장 관련 주요 기록을 간추려보기로 한다.

선조(宣祖)의 부마 집안이자 안산의 남인계 명문가였던 진주유씨 가문이 1728년의 무신난을 지나며 역적 가문으로 급전직하할 무렵, 사촌관계인 유경종(1714-782; 부친 柳耒), 유경용(1718-1753; 부친 柳樸), 유경농(1724-1750; 부친 柳徠)은 모두가 부친을 잃음으로써 어린 시기에 참혹한 위기를 맞았다. 약 15세로서 가장 연장자였던 유경종은 20대 초반까지 우울증을 앓다가 이후에는 가전(家傳) 장서를 열독하는 한편으로 시서화 등의 예술에 심취해 나갔다.

20대의 유경종에 초점을 맞추자면, 그는 이따금 서화에 대한 증언을 남겼다. 『해암고』의 일부인 「만고(漫稿)」(1737년, 24세)에 수록된 작품들, 즉 <내가 가진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는 강세황의 묘필로서 (하략: 余有武夷九曲

7) 유경종, 『해암고(海巖稿)』, 개인소장본, 필사본, 전체 10권.

8) 유경종, 『파적(破寂)』, 고려대도서관 소장본, 필사본. 서화 관련 내용으로, 『千古最盛』첩의 모작인 <臥遊淸賞>을 明禮洞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기록, 恩閑堂에서 강세황과 더불어 조맹부의 <竹樓圖>를 감상한 기록(1760. 12. 20), 기타 종이와 붓, 石碑의 서체 등에 관한 정보가 눈에 띈다. 이 자료는 김영진, 「海巖 柳慶種의 잡록 『破寂』 연구: 작자 고증과 內容 提要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0호, 2010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圖 宜山妙筆 黃季昇借去 憶之爲長相思一詞)〉, <태공좌수도에 제하여(題太公坐睡圖)〉, <정선의 박연폭포 그림을 노래하며(鄭河陽朴淵瀑布圖歌)〉, <불정대를 그린 정선의 두루마리 그림을 노래하며(鄭畫佛頂臺障子圖歌)〉, <석양정의 두루마리 설죽 그림을 노래하며(石陽正雪竹障子歌)〉, <차가운 밤에 등불 앞에서 진거중의 대렵도를 보다가 느낌이 일어(寒夜 燈前閱陳居中大獵圖 有感)〉, <윤덕희의 말 그림에 대해(尹蓮翁畫馬)〉, <신선이 소나무 아래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모습을 그린 윤덕희의 그림에 대해(題畫尹蓮翁德熙氏 畫 老仙長嘯松下)〉 등을 보면, 정선과 심사정을 비롯하여 특히 윤두서~윤덕희 부자의 그림을 애호했음이 확인된다. 남인계의 명가였던 유경종 집안은 선대에 이미 윤두서 집안과 친교를 맺고 있었던 까닭에 몇몇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듯하며, 한편으로는 정선(1676-1759)으로 대표되는 중앙 화단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⁹⁾

꿈속에서 선물 받은 푸른색 옥인(玉印)을 특필한 것으로 보아 20대부터 일제감치 인장에 대한 애호가 시작되었음도 알 수 있겠거니와¹⁰⁾, 100수 잠영인 <이것저것 읊어 심정을 펼치다 보니 백여 편이 되어서야 멈추었다(하락: 襟詠抒情 至百篇而止 矍然回首 無乃荒於詩乎)〉에서는 제92~95수의 서화평 [왕희지, 조맹부, 한석봉, 저수량, 안평대군, 성수침, 동월 등]과 제95~100수의 화가평[강세황, 심사정, 윤두서, 윤덕희, 정선]¹¹⁾을 통해 서화에 대한

9) 「漫稿」에 수록된 관련 증언을 더 들면 다음과 같다. <新居>의 “屏間玄宰秋山畫 案上金生白月碑 夜雪春花還往熟 焚香煮茗拂琴時”; <春間 宜山過我作畫 要命題 余口占 (……) 遂足成一律以寄相思>, <題畫八幅>[右五湖扁舟, 右崔護遺鞭, 右龍門賞雪, 擊筑宋子堂, 獨樂堂, 西湖放鶴, 醉着錦袍, 醉飲豪士家] 등.

10) 「漫稿」, <四月十六朝 小睡夢到一處 似是山寺 遇道人 淨室軟語 似知道者 床上披玉樞地理醫藥等書 出示蒼玉印章 柄甚長 雕刻極妙 且有白色玉印 古人法畫 仍贈余 仍言道理之妙 百家衆技 無不洞晰 嘗亦往來安山 而未知君家在何處 故未訪云 居處蕭洒 氣度安靖 眉宇澹然 覺來猶依依也 晚鷄三呼 遽然而覺異哉> (3수).

11) 예컨대, “宜山烟雨筆 彷彿米元暉 公然棄不習 恨未造深微(제96수)”, “花田善畫竹 沈氏亦葡萄 匠心勞一藝 不過夢龍曹(제97수)”, “尹氏傳家畫 龍面伯仲中 仙人毛髮同 長嘯碧松風

식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20대의 유경중은 가문 소장의 서화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인장에 대한 관심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30대의 유경중에게서 유의할 상황은, 아내 잃은 처남 강세황이 자식들을 데리고 1744년 무렵에 안산으로 이주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1740년대 후반에는 강세황, 유경중, 유경용, 유경농 등이 서로를 위로하며 잦게 모임을 벌였다. 처가에 신세를 지게 된 강세황은 종손이었던 유경용[淸聞堂의 승계자]을 위해 <지상편도(池上篇圖)>[1748년] 등을 그려주었으며, 처남 유경중을 위해서도 각종 그림, 전각, 서첩 등을 잦게 선물했다. 본고에서 살피려는 1747년의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는 청문당에서 열린 복날의 모임을 그린 기록화이자 아회도(雅會圖)인데, 당시 그들이 얼마만큼 인장을 풍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를 극명하게 증명해주는 작품이다.

인장의 활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1746년 무렵 서해가 바라보는 보이는 언덕에 망해암(望海巖)을 짓고 말년까지 이곳을 왕래했음을 빠뜨릴 수 없다. 해암(海巖), 해암거사(海巖居士), 해암초자(海巖樵者) 등의 호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일련의 호가 『해암인소(海巖印所)』의 인장에서 두루 발견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110수 연작인 <육언 110수(六言一百十首)>의 제16수에서 “청산은 나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았고 / 백구는 참으로 나처럼 한가롭구나. // 자그맣게 인장에 새겨놓기를 / ‘사재고송유수지간(思在古松流水之間)’이라 해두었네.(碧山不負吾盟 白鷗眞如我閑 小印文曰思在 古松流水之間)”라고 한 시가 주목된다. 시 구절 속의 “사재고송유수지간(思在古松流水之間 : 나의 그리움은 늙은 솔과 흐르는 시내 사이에 가 있다네)”의 구절은 『해암인소』의 인장에서도 유사한 구문[身在古松流水之間]이 발견된다. 『해암인소』에 찍힌 인장이 이 시기의 실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인영집에 수록된 해암(海巖), 해암거사(海巖居士), 해암초자(海巖樵者) 등과 견주어보면, 강세

(제98수)”, “蒼蒼朴淵圖 鄭歎筆不俗 何論李澄輩 遠過金鳴國(제99수)” 등.

황이 이 무렵에 여러 인장을 처남 유경종에게 선사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740년대 후반, 그러니까 30대의 유경종과 강세황은 바야흐로 인장을 포함한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40세(1753년) 이후의 유경종에게는 다시 처참한 일이 닥친다. 1750년에 사촌 유경농이 죽자 그는 이전의 원고를 대부분 불살라버렸으며, 1753년에 가문의 적장자인 유경용이 사망하자 기나긴 탄식과 실의에 잠긴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동반자로 강세황만이 곁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중에 40대 후반부터 50대에 걸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유경종이 상상의 정원인 의원(意園)에 대한 염원을 품었고 이에 따라 의원도(意園圖)에 대한 갈증이 짙어졌다는 점이다.¹²⁾ 그는 상상의 정원인 의원(意園)을 위해 기문(記文)과 시를 지어 갈망을 표현했으며, 주변의 인물인 강세황과 이용휴 등에게도 그림과 글을 청했다. 『해암인소』 및 현전 실물 중에 의원(意園) 또는 의원거사(意園居士)라는 인장이 더러 발견되는바, 이 역시 유경종의 꿈에 부응하여 강세황이 자주 인장을 새겨주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비통한 40대가 거의 끝나가는 49세 무렵[1762년]부터 유경종은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 시를 짓고 매사를 기록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는 스스로 ‘향리칭선인(鄉里稱善人: 마을에서 선인으로 칭해지기)’를 희망하며, 한(漢)나라의 대장군 마원(馬援)이 향리선인의 삶을 살았던 사촌동생 마소유(馬少游)를 동경했던 고사로서 자신의 지향을 표출하곤 했다. 출세하기보다는

12) 김동준,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誌銘과 意園」, 『韓國漢文學研究』 52호, 2013, 121~159 쪽 참조. 유경종의 1750년작 <次鐸侄寄來諸篇>에 “푸른 산 시냇물 가에 초각 하나 지으니, 다시금 意園圖를 그릴 필요 없으리(流水青山一草閣 未須重作意園圖)”라는 구절이 보인다. 1748년에 유경용을 위해 그려준 <지상편도>도 상상의 정원을 그려준 그림이다. 유경종은 1756년에 장문의 <意園誌>를 지었으며, 이용휴의 부음을 받고 쓴 1782년의 <聞惠實翁訃>에서도 “옛날에 나를 위해 意園記를 써주었고, 근래에는 晚菜堂에 글을 써주었네.(舊述意園記 新題晚菜堂)”라고 적었다. 요컨대 意園은 30대 후반 이후의 유경종을 독해하는 코드 중 하나이다.

향리(鄉里: 고향)에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생애 이상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에 비해 한결 느긋해진 상황에서 시서화에 잠심하며 아울러 인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심화시켰던 것 같다. 1764년에 제작된 『해암인소(海巖印所)』가 바로 이때의 사정을 전하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 인영집은 강세황에게 얻은 인장 236방을 찍어 모아 인보(印譜)를 방불케 하는 풍성한 작품집이 되었다. 이 자료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아울러 50대의 기록 중에 중요한 사실은, 『해암인소』가 제작되는 1764년의 직전에 인장 관련 기록들이 참조된다는 점이다. 우선, 1763년에 쓴 연작시 <느낀 바 있어(有感 初三日)> 연작에는 ‘세상의 문운(文運)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회화와 인장의 영역에서는 융성한 모습이 보이니 이 때문에 더욱 감흥이 고무된다.’는 취지의 시를 남겼다. 서화, 서체, 전각(篆刻) 등에 관한 평이 다수 피력되어 있는데 화단의 융성과 더불어 전각도 번성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연작의 후반에 담겨 있다.¹³⁾

더욱 흥미로운 것은 1763년 10월 20일에 작성된 <신아를 타이르며(戒賁兒)>(전체 8수)이다. 유경용의 아들이자 청문당의 계승자인 당시 16세의 유신(柳晝: 1748~1790)에게 경계삼아 써준 시로서, 부지런히 경진과 시문을 익히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잡으라는 훈계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제4수

13) <有感 初三日>(21수 연작, 1763년작)에서 몇 수를 선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海東文獻美 魯言軼中土 挽近風稍變 事事不及古”, “文辭既廖廖 筆翰亦魯莽 獨有丹青事 一時才藝聚”, “謙齋之山水 沈氏出藍具 葡萄與竹枝 不許與其數”, “觀我與駱西 人物亦其伍 君悅獨師心 或言邁乃祖”, “或以花卉鳴 或以草虫寓 或以禽鳥名 或以美女布”, “李氏之松芝 烟客之梅樹 忝齋出其首 縱筆隨所遇”, “一一各臻妙 畫家之林藪 人力既精深 天機自透露”, “就中所稱許 崔生造化補 下逮閭巷間 吏胥十四五”, “種種脫凡陋 色色有意趣 耳目爲發皇 日月若再觀”, “炳煥極於斯 余不知何故 以至印章刻 亦彬彬慕”, “間有無名氏 亦各闢堂廡 是何無用技 大發振毛羽”, “小篆與八分 世人終撰杜 數家擅筆名 亦是雷門鼓”, “夫孰如忝老 一掃用神斧 八法集大成 糠粃卽繪素”. 위 인용 시의 마지막 몇 작품에서篆刻과 書體에 관심이 드러나 있다.

의 “필획의 빼어남도 또한 한 갈래 특별한 길이니 / 침재(忝齋: 강세황)의 의발을 내가 능히 잇고 있구나.(筆畫清超亦一奇 忝齋衣鉢亦能爲)”라는 한 구절을 통해 당시의 유신이 강세황에게 한창 서예를 배워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해암인소』는 강세황이 글씨를 쓴 원래의 진품이 아니라 유신이 강세황의 것을 본뜬 모사본(模寫本)이므로, 위의 시를 감안하면 모사본 『해암인소』 역시 유신이 훈련 삼아 진본을 임모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유경종이 종손 유신에게 가장 강조한 바는 마지막 8수, “밥이니 옷이니 모두 충분한데다가 / 어른들이 남겨준 만권서(萬卷書)가 집안에 가득하구나. // 산 속의 나날은 한가함도 넉넉한데 / 담배만 배워서야 어찌한단 말이나!(一飯一衣儘有之 家積萬卷先人遺 山林日月閒有裕 學吸烟草欲何爲)”라는 시 안에서 어리비치는 듯하다. 가문을 부흥을 떠맡아야 할 이 장손 조키는 독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기보다는 서화나 담배에 훨씬 마음이 이끌렸던 듯하다.

다만, 60대 이후에는 인장과 관련해서 뚜렷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이는 1774년에 61세의 강세황이 관직에 진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예술로 교감하고 함께 향유한 지기가 이후의 활동 무대를 서울로 옮기면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해암고(海巖稿)』를 중심으로 삼아 유경종의 인장 관련 증언을 간추려보았다. 그의 행적과 증언을 통해 약술된 위의 내용은, 인장에 대한 애호와 활동은 물론이요 유경종 주변에서 생산된 그림과 인영집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소중한 단서가 된다.

Ⅲ. 유경종(柳慶種) 가문의 인장(印章) 활용 양상

이 장에서는 현전하는 그림과 인영집 그리고 실물 인장을 소개하면서 유경종 가문의 인장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정승집

도>, 『해암인소』, 그리고 성호기념관에서 소장한 인장이 그 소개의 대상이다.

1.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로 보는 인장의 활용 양상

<현정승집도>[34.9×212.3cm]는 1747년 6월 11일에 청문당에서 열린 북날 모임을 기념하여 가문의 사위인 강세황이 그림을 그리고 모임에 참여한 친인척 인사들의 시를 합하여 구성한 시화권(詩畫卷)이다[도면1: 현정승집도 권]. 그림에 찍힌 인장을 소개하는 마당에 비단 이 그림 하나만으로 논의를 제한할 필요는 없겠으나¹⁴⁾ 인장 활용을 극대화한 예를 들라 하면 이 그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강세황의 화기(畫記)를 참조하면,¹⁵⁾ 이날의 모임은 초복 다음날 현곡(玄谷: 부곡)의 청문당(淸聞堂)에서 열렸으며, 술자리가 무르익자 일행이 강세황에게 청해 훗날의 볼거리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모인 사람은 유경중, 유경용, 강세황, 유경농, 박도맹, 박성망(朴聖望), 강우(강세황 아들), 유겸(柳謙: 柳慶裕의 아들로 1708년생), 강완(姜完: 강세황 아들), 유성(柳暹: 유경중 아들), 귀남(貴男: 家僮)이었다. 총 11인 중에 기문을 지은 사람은 유경중이고, 시를 지은 사람은 유경중, 유경농, 강세황, 유겸, 유경용, 박도맹, 강우,

14) 예술의 전당 전시 도록, 『푸른 술은 늙지 않는다, 표암 강세황』, 2003, 205쪽에 실린 <맨드라미와 여치> 그림에는 “丁卯(1747)首春爲有受寫”(유수: 유경용의 자)라 적혀 있으며, ‘妙入神’, ‘姜世晃氏’, ‘光之’의 도장이 찍혀 있다. ‘妙入神’은 <현정승집도>에서도 사용된 인장으로 판단된다.

15) “伏日設家簞會飲俗也。丁卯六月一日爲初伏，是日有故，其翌日追設妓會于玄谷之淸聞堂。酒闌，屬光之爲圖，以爲後觀。會者凡十一人，坐室中者爲德祖，戶外執書而對坐者爲有受，中坐者爲光之，傍坐搖扇者爲公明，奕于軒北者爲醇乎，露頂而對局者朴君聖望，側坐者爲姜佑，跣足者爲仲牧，童子二人，讀書者爲慶集，搖扇者爲山岳，軒下侍立者爲家僮貴男。于時積雨初收，新蟬流喝，琴歌迭作，觴詠忘疲，致足樂也。畫成，德祖爲記，諸人各爲詩，系其下。”

유성 순으로 총 8인이었다.

그림의 주제나 구성, 시문의 정취와 문학성 등은 차지하고, 여기서는 다만 인장에 초점을 맞추어보기로 한다. 우선, 이 그림에 사용된 인장의 포치와 문구를 정리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이 그림에는 총 39방의 인장이 찍혀 있는바, 중복된 10방을 제하면 29개의 인장이 사용되었다. 인장 활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화권은 마치 인장의 전시실 같다. 행사 이전에 인장을 새겨주었던 사람은 강세황으로 짐작되는데, 인장의 문구를 기준으로 삼아 그 전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한다.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에 사용된 인장의 포치와 문구]

- [제목 원편] 상하 6방 (상단 유경종 3방, 하단 강세황 3방)
- 유경종 인장 3방: ‘柳慶種’(해서, 양각, 鐘形), ‘鑣碧軒’(전서, 양각, 장방원형), ‘岍山柳慶種德祖老圃’(전서, 음각, 정방형)
 - 그 아래 약간 작은 강세황 인장 3방:
 - ‘豆華亭’(전서, 양각 원형), ‘姜世晃印’(전서, 음각 정방형), ‘光之’(전서, 음각, 정방형)
- [화면 오른쪽] 상하 9방(유경종 관련 9방)
- 화면 우편 상단: 유경종 관련 인장 4방
 - ‘有書齋’(전서, 양각, 장방형), ‘海晷樵者’(전서, 양각, 정방형), ‘柳慶種印’(음각, 전서, 정방형), ‘德祖’(전서, 양각, 정방형)
 - 화면 우편 하단: 유경종 관련 인장 5방
 - 관독 곤란(작은 인장), ‘柳慶種印’(전서, 음각, 정방형), ‘德祖氏’(전서, 양각, 정방형), ‘老圃’(전서, 양각, 호리병형), ‘德祖’(해서, 양각, 周鼎形)
- [화면 원편] 상단 3방(강세황 관련)
- “박암사(樸菴寫: 강세황이 그리다)”라는 글귀 주변에 강세황의 인장 3방
- ‘妙入神’(전서, 음각, 장방형), ‘世晃’(전서, 음각, 정방형), ‘豆華亭’(상동)
- * 이상 화면 주변의 인장 : 유경종 인장 12종 12방, 강세황 인장 5종 6방.
- [제화 발문의 오른쪽] 상하에 유경종 관련 6방 (신종 4방, 중복 2방)
- : ‘妙入神’(상동), ‘岍山’(예서, 양각, 향로형), ‘柳慶種’(전서, 양각, 瓶形), ‘德祖’(전서, 양각, 周鼎形).

‘閑雲流水’(전서, 양각, 장방형), ‘德祖氏’(상동, 양각, 정방형), ‘柳慶種印’(상동, 음각, 정방형)

[제화 발문의 원편] 중하에 강세황, 유경종 관련 3방 (중복 3방)
 : ‘豆華亭’(상동), ‘姜世晃印’(상동, 음각, 정방형), ‘柳慶種印’(상동, 음각 정방형)

[德祖 유경종 제화시] 주변 3방 (신중 1방, 중복 2방)
 : ‘東柯’(?, 전서, 양각, 장방형), ‘海碧樵者’(상동, 양각, 정방형), ‘柳慶種印’(상동, 음각, 장방형)

[公明 유경농 제화시] 주변 : 인영(印影) 없음 * 인장을 찍지 않은 유일한 예외자
 [光之 강세황 제화시] 주변 2방: (중복 2방) ‘豆華亭’(상동), ‘世晃’(상동)

[仲牧 유겸 제화시], 끝 부분 : 1방(신중 1방), 판독곤란 1방
 [有受 유경용 제화시] 끝 부분, 1방(신중 1방) : ‘柳慶容氏’(전서, 음각, 정방형)
 [醇乎 박도孟 제화시] 끝 부분, 1방(신중 1방) : 판독 곤란(전서, 양각, 정방형)
 [姜佑 제화시] 끝 부분 2방(신중 2방) : ‘姜佑’(?, 전서, 음각, 정방형), ‘自天’(전서, 양각, 정방형)

[山岳 제화시] 끝 부분 3방(신중 3방) : ‘柳穰’(柳穰의 초휘, 전서, 양각, 周鼎形), ‘柳穰’(전서, 음각, 정방형), ‘茂弘’(유표의 字, 전서, 양각, 정방형) * 유성은 1737년 생.

* 이상 제화 시문 주변, 총 21방 중 신중 12방
 * 시화권 전체 39방 중 신중 29방, 10방 중복

총 39방[신출 29방]이나 찍힌 <현정승집도> 시화권은 아마도 현전하는 조선후기 단일 회화 중에서 낙관 사용 정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지 않을까 한다. 여타의 시서화첩에 작가 혹은 소장자 등의 인장이 몇 방 이하로 날인되는 사례에 비춰보면 이 그림이 얼마나 과도할 만큼 인장의 사용에 의욕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은 작성하고 인장을 시연(試演)한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들여다보면 유경종의 나이 33세요 강세황의 나이 34세인 1747년, 그해 초부에 작성된 이 두루마리는 기획 감각이 스며든 작품이었던 것 같다. 유경종의 아들인 당시 11세의 유성(1737년생)조차 오언절구 1수를 쓰고 3방의 인장을 찍은 데서 보이듯 시를 지은 사람 대부분이 자신 소유의 인장을

찍었다. 왜 유경농만이 인장을 찍지 않았는지는 미상하나 일행이 행사에 대비하여 이 모임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강세황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시문의 글씨도 직접 필서한 정성에서도 가늠이 되거니와, 청문당의 주인인 유경용도 자신의 문집인 『휴재시고(休齋詩稿)』에 이 날 지은 자신의 시를 적어 두고 있다.¹⁶⁾

한편, 이 시화권에서 단연 존중받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유경종이다. 화면에서 위치 및 제화시 배열의 순서에서 그는 일행의 존장으로 대접받고 있다. 1728년의 무신란으로부터 20년이 흘러서야 유씨 가문의 일원이 모인 이 특별한 자리를 각별하게 기념하고자 했던 듯, 그는 아낌없이 인장을 활용하였다. 인장을 애호하는 이런 모습은 앞서 보았듯이 유경종 30대 시절의 관심과 호응하는 것이자 강세황에 선물받은 인장으로 짐작된다. 추경권대 강세황은 자신의 아들 및 유경종의 아들에게까지 인장을 새겨 주었던 것 같다.

인장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작품은 유경종의 왕성한 욕구를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세황이 유경종에게 겸양을 표하는 듯한 태도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형태상 단정한 ‘묘입신(妙入神)’, ‘세황(世晃)’, ‘두화정(豆華亭)’, ‘광지(光之)’ 등의 인장을 사용한 반면, 유경종은 무려 16방을 이 그림에 찍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인장의 형태가 다채롭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 종 모양의 ‘유경종(柳慶種)’, 정방형의 ‘유경종인(柳慶種印)’과 ‘진산 유경종 덕조 노포(晉山柳慶種德祖老圃)’ 등은 성명인(姓名印)에 속하며, 주정(周鼎) 또는 향로 형태의 ‘진산(晉山)’, ‘덕조(德祖)’, ‘노포(老圃)’는 형태상의 멋을 들인 관향인(貫鄉印)과 자호인(字號印)이다. 여기에 ‘진벽헌(鎭碧軒)’과 ‘유서재(有書齋)’의 당호인(堂號印)을 통해 서해 바다를 진압하듯 자리 잡은 진벽헌의 이미지와 만 권의 책을 소장한 유서재의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16) 유경종, 『休齋詩稿』, 개인소장 필사본 1책. <丁卯 六月十二日 設家獐之會 會者凡十一人 宜山作篇 各爲作詩 不敢以不文辭>라는 제목의 시이다. 시의 원문은 <현정승집도>에 적힌 제화시와 같다.

했다. 채마 밭의 늪은이라는 뜻의 ‘노포(老圃)’와 더불어 해암의 나무꾼이라는 뜻의 ‘해암초자(海巖樵者)’의 호인(號印)까지 남김없이 배치함으로써, 이 그림은 곧 유경종이 마음껏 인장의 향연처럼 즐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는 1747년 6월 현재 시점에서의 일족과 자신의 지향을 이 시화권에 종합해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도면2: 현정승집도의 인영 일부]¹⁷⁾

2. 『해암인소(海巖印所)』의 내용과 인장의 분류

현재 안산의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해암인소(海巖印所)』는 인영집으로서 남아 있는 초기의 자료이다.¹⁸⁾ 오세창이 『근역인수(權域印藪)』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허균, 김상헌, 홍석귀, 윤두서 등의 인영집을 실견했던 듯하지만 지금은 이 자료들의 현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런 까닭에 1764년의 사정을 반영한 『해암인소』가 지닌 가치가 적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귀한 자료는 강세황의 친필로 작성된 원래의 진본이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유신, 즉 유경종의 조카이자 유경용의 아들이었던 그 인물이 강세황 친필의 진본을 임모한 모사본이다. 원본은 강세황이 직접 서발문의 글씨를 쓰고 유경종 소장의 인장을 찍은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1764년 무렵에 유신이 강세황에게 글씨를 배웠던 정황이 앞서 확인되었고, 나아가 임모본에 찍힌 인영은 그것 자체가 원래의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한 중요도를 지닌다.

자료의 본격적인 소개를 겸하는 타이므로!¹⁹⁾ 이제 이 자료의 서발문을 번역

17) 이 인영은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 나간 예술혼』(국립중앙박물관, 2013)의 44쪽을 필자가 재편집한 것임.

18) 자료를 협조해주신 경기도 안산시와 성호기념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성호기념관에서는 인장의 실물 사진 및 위 인영집을 촬영하여 보내주셨다.

19) 김영진의 발표문(2013, 한국한문학회)과 정은진의 논고(2017, 60~61쪽)에서 소개된 적이 있고 언론(『국제뉴스』, 2018. 3. 29; 『인천일보』, 2018. 3. 30. 등)에 알려진

하여 소개하는 한편으로 본문에 찍힌 인영의 문구를 개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첩자(帖子) 형태의 이 자료는 (가) 유경종의 서문(序文: 오언고시, 행서체) (나) 강세황의 서문(산문, 예서체), (다) 236방의 인영 본문 (라) 유경종의 발문(跋文: 산문, 전서체)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먼저 (가)의 원문과 번역문을 든다.

□ 유경종의 서문 : [도면3: 『해암인소』 소재 유경종의 서문]

이 서문의 끝에는 “海巖作 豹菴書 臨書”란 표기가 달려 있다. 즉, ‘해암 유경종이 짓고 표암 강세황이 글씨를 썼는데 이를 유신이 임서했다’고 밝혀 둔 것이다.

[원문] 我愛古印章，通人之病。雲錦舒彩色，龜螭蟠鈕桶。莫言雕鏤陋，自有袍笏興。篆文要詰屈，體質貴堅靜。溫栗以比德，嗜好亦出正。忝齋雖笑我，忘勞每刻贈。不數玉剛卯，詎放海篇鏡。摩挲終日弄，心氣一時定。最近儒者事，自詎寶藏盛。累累几席間，厥數百枚贖。譜藪行續(?)作，鐘鼎無詠羨。怪石有何好，退溪置歸艇。

[번역문]²⁰⁾ 나는 옛 인장(印章)을 좋아하나, 박식한 사람의 병통이로다. 구름과 비단처럼 인주 색깔 펼치고, 거북과 교룡 모양으로 꼭지를 새겼다. 아로새기는 이 행위를 누추하다 말라, 도포와 홀을 갖춘 흥²¹⁾이 절로 이나니. 전서체 문양은 구불구불해야 제격이고, 인장의 재질은 굳건함이 귀하여라. 온기 있고 단단함은 덕(德)에 비할 만하니, 인장을 애호함은 또한 바름에서 나온 것. 첩재(忝齋: 강세황)가 비록 나를 비웃지만, 수고로움을 잊고 매번 새겨서 선물해 주었네. 옥강묘(玉剛卯)²²⁾ 같은 명품 옥이야 아랑곳 없으니, 해편경(海篇鏡)²³⁾ 같은 기이한 서체를 따져서 무엇하리. 온종일 인장을 만지작거리면, 마음이 어느새 차분해지네. 선비에게 가장 친근한 일인지라, 인장 많이 소장함을 스스로 자랑하네. 올망졸망 책상에다 늘어놓으니, 그 수가 백여 방을 훌쩍 넘었네. 인보(印譜)와 인수(印數)를 연달아 만들면, 종정(鐘鼎)같은 골동품도 부럽지 않으리. 기이한 돌이 뭐 그리 좋으셨던지, 퇴계 선생도 돌아가는 배에 실어 가셨지.²⁴⁾

바도 있으나, 본격적인 조명은 본고가 처음이 될 듯하다. 권수와 권말에 유신의 아들인 柳重序의 소장인이 찍혀 있다.

행서체 오언고시 형식으로 쓰여진 위 내용은, 병통이 될 만큼 옛 인장을 매우 좋아하였다는 첫 머리의 술화에 이어, 인주의 색깔과 인장 꼭지, 인장의 서체(篆書)와 재질 등에 대한 소견을 진술하다가, 인장에 대한 기호도 결국은 덕(德)과 바름[正]에서 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강세황에게 인장을 얻어 애지중지 완상한 사실과 그 얻은 수가 수백 방에 이를 만큼 성대하게 된 데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었으며, 끄트머리에는 퇴계 이황이 괴석을 아꼈던 고사를 들어 자신의 인장 애호벽을 정당화하였다.

이 서문을 통해, 유경종이 오랜 동안 인장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강세황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해암고』에서 살핀 30대 이후의 사정과 정확하게 대응된다. 또한 이 『해암인소』를 작성한 1764년 그의 나이 51세에 자신이 소장한 인장을 찍어 적극적으로 인보(印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는 점, 이 인보의 작업이 유자(儒者)에게 친근한 일이자 선비의 덕과 연관된다고 하여 인장의 향유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간추릴 수 있다. 요컨대 『해암인소』는 인장에 대한 유경종의 욕구와 정당화를 대변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완물상지(玩物喪志)를 들어 인장을 비판하곤 했던 전대(前代)의 논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바야흐로 인장이 유자(儒者)들의 당연하고 아취어린 권리로 변화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겠다.

20) 김영진(2013)의 번역을 참조하여 가감함.

21) 출세하여 관복을 차려 입은 듯한 흥취.

22) 玉剛卯는 중국의 고대에 護身의 부적으로 사용했던 사각형 장방형의 옥. 漢나라 때 특히 유행했다 하며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23) 海篇鏡은 『海篇心鏡』을 말함. 이 책은 전자문 등을 고대의 서체로 써 놓은 것으로, 국내 소장의 『玉堂釐正字義韻律海篇心鏡』은 1603년의 朱之蕃 서문본을 교정한 본으로 보인다. 유경종의 선조인 柳根이 주지번을 수행하면서 서화첩 등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다.

24) 김성일의 『退溪先生言行錄』에 따르면, 퇴계 이황이 단양군수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오직 怪石 두 개만 배에 싣고 가져갔다고 하였다.

□ 강세황의 서문 : [도면4: 『해암인소』 소재 강세황의 서문]

이 자료의 끝에는 ‘責臨書’, 즉 ‘유신이 임서했다’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원문] 印章雖小道，亦有學與識焉。精妙細巧，未脫匠氣，蒼老典雅，方得古意，雕鏤非難，識解爲難。余癖此有年，海巖獨賞許之。積以歲月，至二百餘方，亦可謂富矣。古人曰：“雕蟲篆刻，丈夫不爲。”余於是，深有愧焉。一時游戲，只宜趣刻趣銷，奈之何，印搨成帙，期傳永久，則余識解淺深，和盤托出，舊癖膏肓，逾見難醫，只因海巖之好事，既不得藏我之拙，又不能遮我之羞。咄哉！爲序一言以弁其首。甲申六月下浣 豹菴書。

[번역문]²⁵⁾ 인장이 비록 자잘한 도(道)이지만 여기에도 학문과 식견이 존재한다. 정묘(精妙)하고 세밀하게 아로새기느라 장인(丈人: 기술자)의 습기(習氣)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창노(蒼老)하고 전아(典雅)한 것은 마야흐로 고인의 경지[古意]를 얻었다고 하겠으니, 조각하고 새기는 습씨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앎과 이해의 깊이가 어려운 것이다. 나는 인장에 벽(癖)이 생긴 지가 오랜 세월인데, 처남인 해암(海巖: 柳慶種)이 유독 감상을 하면서 인정해주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200여 방이 되었으므로 이 또한 풍부하다 할 만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조충전각(雕蟲篆刻)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나는 이에 매우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 때의 유희(遊戲)로 다만 곧장 새기다가 곧장 그만두면 마땅할 것을 어찌하여 인장을 찍어 권질(卷帙)을 이루고 영구히 전하기를 바라던 말인가? 그런 즉 나의 식견이 뻔히 그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으나, 오랜 벽이 되어 이 고질병을 고치기가 어렵게 되었다. 단지 해암의 호사스러움으로 인해 이미 나의 졸렬함을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게 되었구나. 아! 서문 한 편을 지어서 그 첫머리에 엮는다. 1764년 6월 하순에 표암(豹菴: 강세황)이 쓴다.

예서체 산문으로 작성된 위 강세황의 서문에는, 자신의 오랜 인장 벽(癖)에도 불구하고 유독 처남 유경종이 이를 인정해주었다는 대목과, 인장이란 한갓 유희나 조충전각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겸양이 보인다. 그러나 이 표면상의 진술을 벗겨내면, ‘자잘해 보이는 도[小道]로 보일지언정 인장의

25) 정은진(2017)의 번역을 참조하여 가감함.

근저에는 학식(學識)이 뿌리박혀 있고, 창건(蒼老)하고 전아(典雅)한 옛 전각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또한 높고 깊은 경지'라는 견해가 스며들어 있다. 줄렬함과 부끄러움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세황이 전각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한 데서 발현된 서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1764년의 서문은 1762년 무렵에 강세황이 쓴 다른 글 <도서(圖書)>와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 『표암유고(豹菴遺稿)』뿐만 아니라 강세황의 필기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도서>는,²⁶⁾ 강세황이 명나라 고종덕(顧從德: 1520~?)의 『인수(印藪)』 등을 열람하였음을 알게 하며, 아울러 도+서(圖+書) 곧 인장의 개념,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각법(刻法) 및 국내 상황에 관한 강세황의 식견이 진술되어 있다. 즉, 『해암인소』의 서문 작성 이전에 강세황은 인장에 대한 식견을 갖춘 상황이었으며, 그런 흐름에서 인장에 강세황의 태도와 신념이 드러난 예가 위의 서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 유경종의 발문 : [도면5: 『해암인소』 소재 유경종의 서문]

[원문] 東方印章之法, 昉於尹恭齋, 近日益盛, 至豹菴兄集大成矣. 余偶嗜于此, 每乞兄成之, 與共欣賞, 今譜爲一冊. 見者, 以爲無愧中土名家, 或謂余二人太多事, 惟知解者知此, 不知解者不知此. 玄德結髮, 稽康鍛鐵(金夷), 阮孚蠟屐, 皆癖也. 余亦不自知, 其何心? 惟豹菴高情逸品, 可以略見於此, 甲申季夏海巖跋.

[번역문] 우리나라에서 인장 만드는 법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에게서 비롯되어 근래에 더욱 성행하였는데 표암 강세황 형에 이르러 집대성이 되었다. 내가 우연히 인장에 기호가 생겨 매번 표암 형을 보쳐서 만들어 달라하고는 함께 즐기며 감상하다가 이제는 인보(印譜) 한 책을 이루게 되었다. 보는 이가 중국의 명가(名家)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겠고, 어떤 이는 우리 두 사람이 너무 호들갑스럽다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오직 아는 자가 이를 알 것이요 모르는 자는 이를 모를 것이다. 현덕(玄德)이

26) 강경훈, 『『표암유고』의 ‘八物志 草蘖本’에 대하여』, 『고서연구』14호, 보경문화사, 1997. <도서>의 내용과 분석은 정은진(2017)의 논고 64~71쪽을 참조하기 바람.

머리를 묶는다거나,²⁷⁾ 혜강(稽康)이 철을 단련한다든가,²⁸⁾ 완부(阮孚)가 나막신에 밀랍 칠을 했던 것²⁹⁾은 모두가 벽(癖)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으니 그 무슨 마음에서 그런 것인가? 오직 표암의 고상한 정취와 빼어난 작품을 대략 여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리라. 갑신년(1764) 계하(季夏: 6월)에 해암(海巖: 유경종)이 발문을 쓴다.

위 유경종의 전서체(篆書體) 발문은, 조선의 인장사를 윤두서~강세황의 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계보는 다분히 윤두서-강세황 집안과 맺은 유씨 가문의 세교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나, 적어도 유경종이 국내의 인장사를 자기 나름의 시각에서 계통화하고자 했음을 추측케 한다. 아울러 이 발문은, 전각의 집대성자로 고풍한 강세황의 인장을 얻어 『해암인소』를 작성하게 된 내력을 정리해두고 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면 이 인영집은 결국 1764년 현재 시점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영집으로 부상하게 되어 있다. 곧, 강세황과 유경종이 그때까지의 노력을 결산한 합작 인영집이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행서체를 이용한 유경종의 서문, 예서체를 사용한 강세황의 서문, 전서체를 선택한 유경종은 발문은, 각종 서체의 안배를 통해 인각의 서체와 호응시키려했던 의도까지 가늠하게 만든다. <현정승집도>와 마찬가지로 『해암인소』 역시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기획과 준비에 의한 결과로 보이는 것이다.

이제, 서발문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해암인소』에 날인된 236방의 인장을 소개할 차례이다. 역시 전각의 솜씨 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그 문구를 기준하여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 27) 미상. 아마도 玄德(곧 劉備)이 평소에 머리 묶기를 매우 좋아하였다는 뜻의 고사일 듯하다.
 - 28) 위(魏)나라의 혜강이 평소에 철을 단련하기를 매우 좋아하였다는 고사. ‘稽康鍛鐵’의 고사가 전한다.
 - 29) 진(晉)의 완부가 반들반들 나막신에 밀랍을 칠해서 신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 고사. ‘阮孚蠟履’의 고사가 전한다.

□ 『해암인소(海巖印所)』 수록 인영의 분류

: [도면6: 『해암인소』 소재 인영(印影)의 일부]

- (가) 관향인(貫鄉印): 靑川世家, 晉山
* 현전 실물이나 그림 속의 인장에 비하면 이 인영집에는 관향인이 드문 편임.
- (나) 성명인(姓名印) : 『해암인소』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다) 자호인(字號印): 意園 / 林湖散人 / 意園居士 / 海巖 / 意園 / 海巖漁樵 / 石圃 / 海岩居士
/ 海岩居士印 / 麥翁 / 松瀑 / 弄石翁 / 堪臥山人 / 鐵[金+夷]屏 / 鄉里稱善人 / 堪臥齋至人 등.
- (라) 당호인(堂號印):³⁰⁾ 晚翠軒 / 蓮華峰下 / 蟬庵 / 澄翠閣 / 用因菴³¹⁾ / 用因菴氏 / 南山亭
/ 望海菴 / 松鱗閣 / 堪臥堂 / 鎮碧軒 / 堪臥室 / 溪雲閣 등.
- (마) 소장인(所藏印): 鎮碧軒 / 鑑賞之記 / 玄圃圖書 / 奇文共賞 / 家有書三千卷 / 千卷樓
/ 鎮碧軒藏書 / 堪臥堂印 / 容+亭圖書記 / [堪臥堂 / 鎮碧軒] 등.
- (바) 성어인(成語印): 天成玄墨 / 朝出耕暮歸讀古人書 / 席上南華秋水 屏間北窓曉山 / 翠岡帶溪 / 一生好人居山游 / 憶林湖 / 水田飛白鷺 / 願讀盡世間好書願看盡世間好山水 / 山林日月長 / 生涯一片青山 / 圃亭墨藏 / 晚知有益 / 紙窓艸屋 / 一壑流水一山雲 / 堪臥山田 / 樂山澤之游 / 滿窓晴旭 / 萬壑爭流 / 身在古松流水之間 / 我弄我書 / 白雲堪臥 / 身在淵明記裏家居摩詰圖中 / 發興自林泉 / 清泉白石 / 華開鳥語 / 彈琴讀書 / 萬木陰中石澗 百華深處草亭 / 山中人 / □間中日月讀書□宿好樂哉□□□□鄉里稱善□足矣 / 讀書談道 / 奇文共賞 등.
- (마) 시구인(詩句印):
 請息交以絕游 : 陶潛의 <歸去來辭> 출전
 月色江聲共一樓 : 출전 미상
 山窓晴日自從容 : 출전 미상
 衡門之下有琴有書 : 『詩經 / 衡門』의 “衡門之下 可以棲遲” 출전
 萬壑千峰獨閉門 : 劉長卿의 <過鄭山人所居> 출전
 明月來間照 : 출전 미상. 王維, <竹里館> 의 “林深人不知 明月來相照”와 유사함
 心遠地自偏 : 陶潛의 <飲酒> 출전

繞屋樹扶疎：陶潛의 <讀山海經> 출전
 在家常早起：杜甫의 <吾宗> 출전
 水流雲在 月到風來：출전 미상
 松月夜窗虛：孟浩然的 <歲暮歸南山> 출전
 流澗聲中把道書：董其昌의 <題紅樹秋色> 출전
 秋月照寒水：朱熹의 <齋居感興二十首> 출전
 飛泉漱鳴玉：陸機의 <招隱詩> 출전
 山月照彈琴：王維의 <酬張少府> 출전.
 이외 생략함.

이상 『해암인소』에 찍힌 인장의 문구와 분류의 결과를 놓고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인장의 내용에 따른 활용의 폭이 넓다. 현전하는 실물 인장이나 <현정승집도> 등에 날인된 인장에서 관향인과 성명인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위 인영집에는 오히려 이 계통의 인장이 드물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 인영집에 수렴된 관향인(貫鄉印), 자호인(字號印), 소장인(所藏印), 성어인(成語印), 시구인(詩句印)은 인장을 애호한 문인의 아취를 돋보이게 하면서 그 다채로움을 뽐내고 있다.

둘째, 전서, 예서, 행서 등 인각의 서체가 다채로우며, 인각의 형태와 인장의 모양 등도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논의를 생략하지만, 이런 다채로움은 인장 향유의 적극성을 읽어내기에 충분하다.

셋째, 성어인과 시구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인장의 구절을 통해 서정 또는 아포리즘을 수렴하고자 했던 욕구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 계열의 인장은 일종의 시학(詩學)을 지향하여 그 반열에 오르게 한 것처럼 보인다. 도잠, 육기, 두보, 왕유, 맹호연, 주희 등의 시를 가져온 시구인은 그것 자체가 전원의 삶을 형상화한 시들로서 유경종의 시심(詩心)과 정서적 지향을 대변해

30) 이외에 미처 판독해내지 못한 당호인이 많고, 樵臥堂과 鑿碧軒처럼 당호인과 소장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31) 用因菴氏：『孝經』의 구절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에서 用과 因을 인용한 것임.

준다. 이와 더불어 ‘신재고송유수지간(身在古松流水之間)’은 앞서 『해암고』의 시에서 살핀 용례와 유사하다. ‘생애일편청산(生涯一片青山: 한 생애가 한 조각 청산 안에 고스란하네)’은 당시 안산 문인들의 시회집인 『단원아집(檀園雅集)』에서 분운(分韻)으로 활용된 구절인바, 시회의 시구를 인장으로 새겨둔 예가 아닌가 한다. ‘조출경 모귀독고인서(朝出耕 暮歸讀古人書: 아침에 나가 밭 갈고 저녁이면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는다)’, ‘원독진세간호서 원간진세간호산수(願讀盡世間好書 願看盡世間好山水: 세상의 좋은 책을 다 읽고 싶고 세상의 좋은 산수는 다 보고 싶어라)’, ‘감와산전(堪臥山田: 산자락 따비밭에 누워 있고파)’, ‘백운감와(白雲堪臥: 하얀 구름에 누워 있고파)’, ‘발흥자림천(發興自林泉: 샘과 숲으로부터 흥이 솟어나네)’에서 보듯이, 성어인도 대체로 안산의 산수 속에 물러나 사는 향리의 삶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구가 새겨진 바로 그 인장들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유물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넷째, 이 인장들을 통해 유경종과 강세황이 교감했던 삶의 정취와 감각, 특히 소장자인 유경종의 인생과 소망을 탐색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경종의 자호인 중에서 ‘의원(意園)’, ‘의원거사(意園居士)’, ‘해암(海巖)’, ‘해암거사(海岩居士)’, ‘감와산인(堪臥山人)’, ‘향리칭선인(鄉里稱善人)’ 등은 유경종이 신산한 그의 삶에서 갈망했던 꿈을 표현한 것이다. 상상의 정원인 의원, 바닷가의 암자였던 해암, 그리고 대단한 출세보다는 고행[향리]에서의 선인(善人)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형시켜 나가야만 했던 삶의 내력이 이 인장들 속에 집약되어 있는 셈이다. 당호인 중에서 ‘선암(蟬庵)’, ‘용인암(用因菴)’, ‘망해암(望海菴)’, ‘감와당(堪臥堂)’ 등도 그의 인생관을 전달해주며, ‘진벽헌(鎭碧軒)’, ‘기문공상(奇文共賞)’, ‘가유서삼천권(家有書三千卷)’, ‘천권루(千卷樓)’ 등의 장서인은 저명한 장서가 집안으로서의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성어인에서는 그가 바랐던 삶이 더욱 정취 있게 수렴되어 있다. 앞의 셋째 항목에서 든 인장들 외에도, ‘좌석에는 남화경(南華經)의 추수편(秋水篇)

을 놓아두고, 병풍 사이로는 북쪽 창문과 새벽 산이 놓여 있네(席上南華秋水屏間北窓曉山)’, ‘논밭 위로 하얀 백로가 날아가네(水田飛白鷺)’, ‘나는 나의 책을 매만지네(我弄我書)’, ‘몸은 도연명의 기문 속에 있고, 집은 왕마힐의 그림 속에 담겼네(身在淵明記裏 家居摩詰圖中)’, ‘책을 읽고 도를 말한다(讀書談道)’ 등은 유경종이 선명한 삶과 아취를 느끼게 해준다. 처남인 강세황이 이런 문구를 골라 새겨주었던 데는 유경종의 요청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보다는 강세황이 평소 유경종의 내면적 지향을 잘 알고 지내면서 그에게 건네준 위로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3. 실물로 현전하는 인장 : 성호기념관 소장 인장

[도면7: 진주유씨가문 기탁 성호기념관 소장의 인장 사진]

이제 마지막으로 『해암인소』, <현정승집도> 등에 사용된 실물 인장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현전 시화권과 인영집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유경종 관련 인장은 약 250~300방이 이를 만큼 많다. 그렇다면 당시 사용된 인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옛 그림 속의 그 인장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이 낙관한 그 인장이 대부분 실전되었듯이 실물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그런데 유경종 가문의 경우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안산의 고택을 지켜옴으로써 그 옛날의 인장 일부가 지금도 실물로 남아 있다. 유경용-유신 계열의 후손 가에서 성호기념관에 기탁한 인장 29방이 바로 그것이다.

각종 서체와 형태로 이루어진 기탁 인장 36방³²⁾을 필자가 모두 판독해내지

32) 이 인장이 모두 성호기념관에 기탁되어 있는지는 다시 고증을 요한다. 필자는 성호기념관에서 보내준 사진과 『해암인소』의 공백 1면에 찍힌 약 40방의 인영을 대상으로

는 못하였으나 그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慶容 / 身在茲□□研間 / 休齋藏書 / [圓形 封緘印] / 有受 / 柳□□印 / □堂 / 柳樸
 / □与□ / 慶種 / 先生潛人心 / 柳遠永印 / 坐看雲起時 / 有受氏 / □溪 / 心賞 / 心無一事
 / 有鷺軒 / 玉□ / 柳賁 / 海岩 / 澄翠閣 / 晉山 / 薇石山房 / 雙梅軒翁 / 日月江聲共一樓
 / 竹阿 / 石□山房 / 疑(?)義相根 / 蟬庵 / 晉山柳慶容有受休齋 / □□□□ / 自林泉發興
 / 鐵(金+夷)屏 / 玉帶金魚 / 柳慶容印

위에 든 인장을 검토해보면, 유경종과 관련된 인장 다수를 비롯하여, 유경용-유신 및 그 후손의 도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유매(柳樸)/유경용(柳慶容; 자 有受, 호 休齋)/유신(柳賁)은 조-부-손의 관계에 있으며 유원영(柳遠永)은 그 후손이다.

그런데 이 인장들 중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은 『해암인소』에 찍힌 그 도장들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필자가 살피기에, ‘좌간운기시(坐看雲起時)’, ‘징취각(澄翠閣)’, ‘일월강성공일루(日月江聲共一樓)’, ‘죽아(竹阿?)’, ‘선암(蟬庵)’, ‘자림천발흥(自林泉發興)’, ‘철병(鐵屏)’, ‘옥대금어(玉帶金魚)’ 포함 약 11방이 『해암인소』의 인영과 일치한다. 짐작건대, 유경종과 유경용 당대의 인장이 종손인 유경용-유신 집안에서 보관되어 오다가 그들의 직계 종손인 유문형-유주형 형제에 이르러 성호기념관에 기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쉬운 것은, 『해암인소』에 흔적을 남긴 그 나머지 인장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 이 인장들이 발견되어 그 진가가 더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다.

삼아 판독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본고는 18세기 경기도 안산에서 활동한 유경종과 그 주변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인장이 활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유경종 주변의 인장이 그 이전의 인장과 인보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들 인각의 수준이 어떠한지, 나아가 유경종의 인장이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분명한 한계이다. 다만 본고는 해당 사례와 자료를 소개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자 했다. 그런 맥락에서, 유경종 가문이 <현정승집도> 등의 그림, 『해암인소(海巖印所)』라는 인영집, 『해암고(海巖稿)』라는 문집, 당시 인장의 실물을 두루 보유한 사실은 학술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 평가될 만하다.

본론에서는 우선 유경종의 문집인 『해암고』를 검토하여, 그의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장 관련 증언을 소개하였다. 20대에 형성된 인장에 대한 애호가, 강세황과 같이 살게 된 30대에 본격화되었으며, 『해암인소』가 작성된 1764년경에는 인보를 작성하려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간추릴 수 있었다. 유경종의 이 증언들은 유경종의 삶과 지향을 가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장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어 1747년 6월에 그려진 <현정승집도>권을 예로 삼아 유경종과 그 주위 인물들이 얼마만큼 인장을 애호하였는지를 확인했다. 인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시화권은 유경종이 작성하고 인장을 시연한 결과물이었다고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 『해암인소』의 서발문과 인장의 실체를 검토한 결과, 이 인보가 유경종의 의욕과 기획에 힘입어 작성된 결과라고 추론하였다. 현전본이 비록 유신(柳愷)의 임모본(臨模本)이라 할지라도, 이 인영집은 현전하는 이른 시기의 인영집으로서 귀중함을 지니며, 인장의 가치에 대한 유경종과 강세황의 신념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200여방의 인영을 통해 인장의 활용 폭이 매우 넓었음을 확인한바, 관습적인 관항인과 성명인

을 넘어, 자호인, 당호인, 소장인, 성어인, 시구인이 풍부하게 제작되고 감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 이 인장들은 유경종의 삶과 지향을 긴밀하게 반영하고 있었으며, 때때로는 그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물로서의 의의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 자료로, 성호기념관에 기탁되어 있는 실물인장을 주의해보았다. 이중 11방은 『해암인소』에 찍힌 바로 그 인장으로서 후손 가문이 오랫동안 보관해온 귀한 유물임을 알게 되었다.

자료의 소개를 겸해 유경종 가문의 인장 활용 양상을 탐색한 이상의 논의는 이후에 안산 문인들의 범위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이철환의 『섬사편(剡社篇)』을 비롯하여 여주이씨 가문의 자제들이 제작한 시화첩에도 인장 문화를 고찰할 수 있는 현상이 적지 않다. 유경종-강세황 그룹과 이재덕-이현환 그룹을 함께 고찰해나가면 당시의 인장 문화에 대해 더 풍성한 연구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주요자료>

- 강세황,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권, 개인 소장.
강세황, 『표암유고(豹菴遺稿)』, 한국학중앙연구원, 1979.
유경용, 『휴재시고(休齋詩稿)』, 개인 소장, 필사본.
유경종, 『해암고(海巖稿)』, 개인 소장, 필사본.
유경종, 『파적(破寂)』,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필사본.
유경종 편, 『해암인소(海巖印所)』, 성호기념관 소장.

<보조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표암 강세황, 시대를 앞서 나간 예술혼』, 2013.
예술의전당 도록, 『푸른 솔은 늙지 않는다, 표암 강세황』, 2003.
오세창 편, 『權域印藪』, 국회도서관, 1968.
이철환, 『섬사편(剡社篇)』, 개인 소장.
이재덕 등, 『단원아집(檀園雅集)』, 개인 소장.

<논저>

- 강경훈, 「『표암유고』의 ‘八物志 草藁本’에 대하여」, 『고서연구』 14호, 1997.
구자훈, 「조선조의 장서인·장서가 연구: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1.
김양동, 「韓國 印章의 歷史」, 국립민속박물관 편,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2006.
김동준, 「18세기 안산지역 문인들의 교유와 雅會」,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편, 『安山市史』 4, 안산시사 편찬위원회, 2011.
김동준,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誌銘과 意園」, 『韓國漢文學研究』 52호, 2013.
김영진, 「海巖 柳慶種의 잡록 『破寂』 연구」, 『한문학논집』 30호, 2010.
박철상, 「임진왜란과 장서인 보급」, 『문헌과해석』 18호, 2002.
박철상, 「미수전과 낭선군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19호, 2002.

- 박철상, 「만권루와 이하곤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0호, 2002.
- 박철상, 「정조와 경화세족 장서인」, 『문헌과해석』 23호, 2003.
- 박철상, 「문인전각가의 등장과 장서인」, 『문헌과해석』 25호, 2003.
- 박철상, 「표암 강세황가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6호, 2004.
- 박철상, 「조선후기 문인들의 인장에 대한 認識의 一面」, 『한문교육연구』 35호, 2010.
- 성인근, 『한국인장사』, 보고서, 2013.
- 정은진, 「18세기 근기(近畿) 지식인의 인장(印章) 관련 담론 연구」, 『한국학논집』 69호,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ASPECT OF STAMPS IN THE
FAMILY OF HAEAM(海巖) LIU GYUNGJONG(柳慶種)

KIM DONGJUN (KIM, DONG JUN)

Even though stamps are interesting objects in Korean culture, there have not been many researches on them. Thus, this thesis concretely researched a phase of utilizing stamps by focusing on Liu Gyungjong(柳慶種) actively working in Ansan(安山) region of Gyeonggi-do in the 18th century, and also on the people around him.

Chapter2 examines the testimonies related to stamps through 『Haeamgo(海巖稿)』by Liu Gyungjong. He left relatively plentiful records of stamps from his 20s to his 60s. His taste in stamps was based on paintings which incorporated poetry and calligraphy as well as the art of engraving stamps. All this originated from an artistic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is

brother-in-law Kang Schwang(姜世晃). The contents that were understood through records and testimonies became precious clues for interpreting the paintings enjoyed by surroundings of Liu Gyungjong, his collection of stamps, and actual stamps.

Chapter3 considers the actual utilization of stamps by the family of Liu Gyungjong. First, through analyzing <Hyeojeongseungjipdo(玄亭勝集圖)>, the research shows that Liu Gyungjong and the people around him actively used stamps. Second, the chapter introduces a collection of stamps

『Haeaminseo(海巖印所)』. This precious booklet of stamps is a copy of original text of Inbo that was sealed with 236 stamps and presented by Kang Schwang to Liu Gyungjong. The copy was made by Liu Sin(柳賚) who was a cousin of Liu Gyungjong. Through these stamps, the prologue and the epilogue, the reality of stamps in the collections and the perception of those stamps is revealed. Lastly, the stamps themselves are reviewed. Roughly 29 stamps entrusted by Jinju(晉州) Liu Clan to Seongho(星湖) Memorial Hall in Ansan City include the actual articles used for Inbo(印譜) and the paintings researched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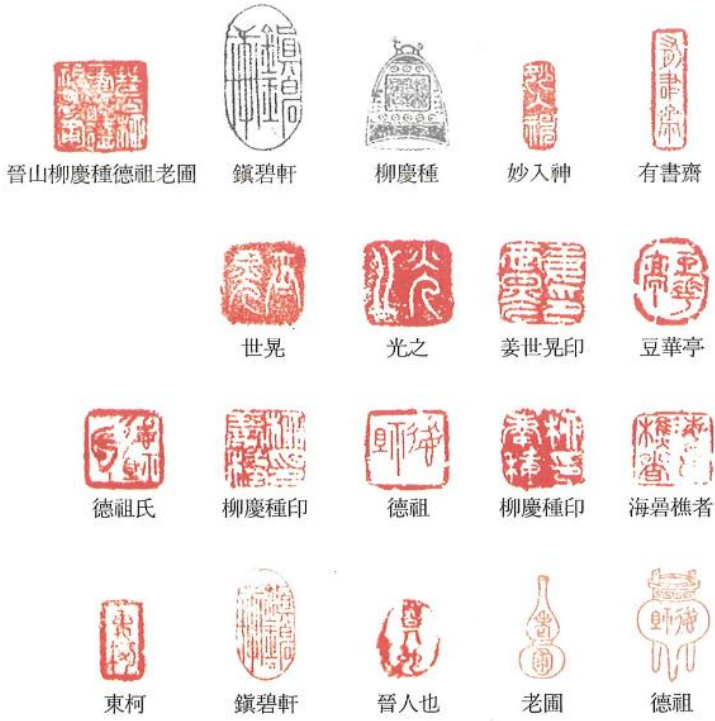
In conclusion, the family of Liu Gyungjong of the 18th century was a rare case in that we are able to verify all the books of poetry & paintings, Inbo, and the actual stamps. Through this study, the utilization of stamps in the Joseon Dynasty is more clearly illuminated.

Key Words : Liu Gyungjong(柳慶種), Kang Schwang(姜世晃), Stamp(印章), Inbo(印譜), 『Haeaminseo(海巖印所)』, <Hyeonjeongseungjipdo(玄亭勝集圖)>

【부록 : 참고 도면】



[도면1: 현정승집도권(玄亭勝集圖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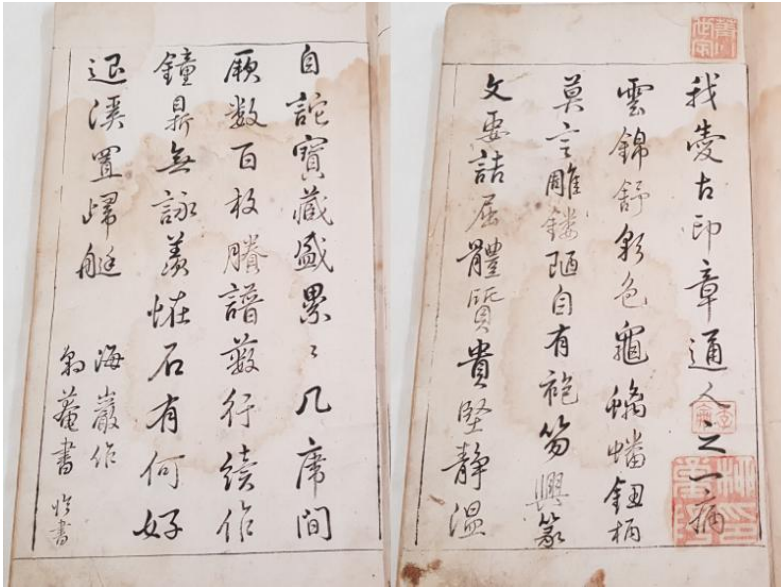


[도면2: 현정승집도의 인영(印影) 일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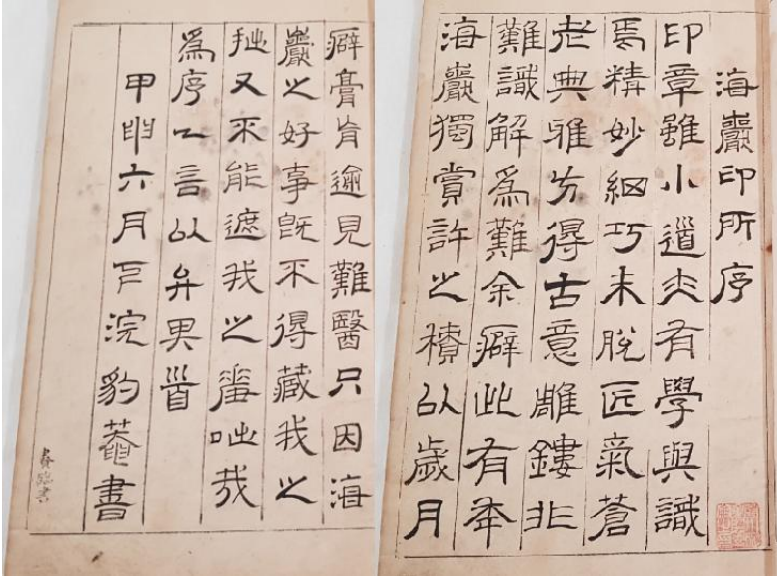
해암(海巖) 유경종(柳慶種) 가문의 인장(印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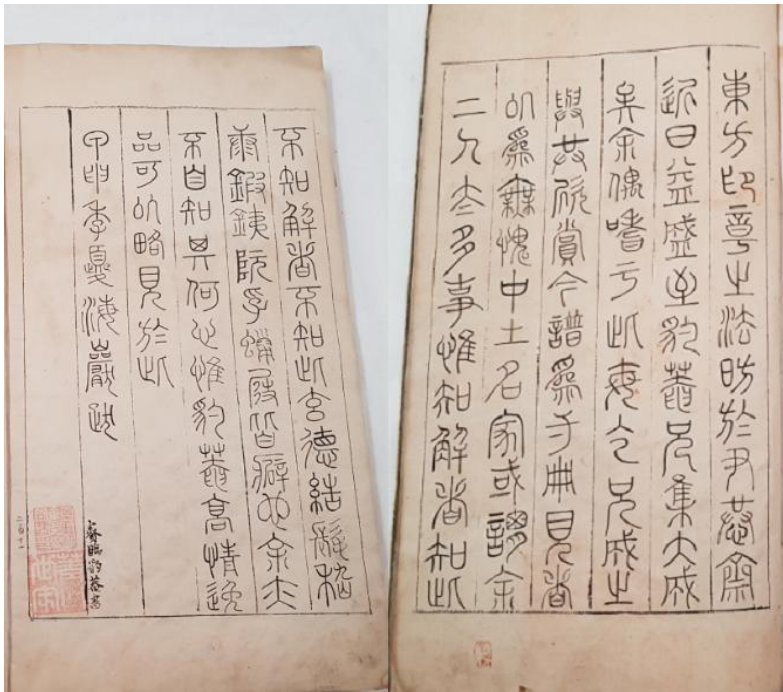
[도면2: 현정승집도의 인영(印影) 일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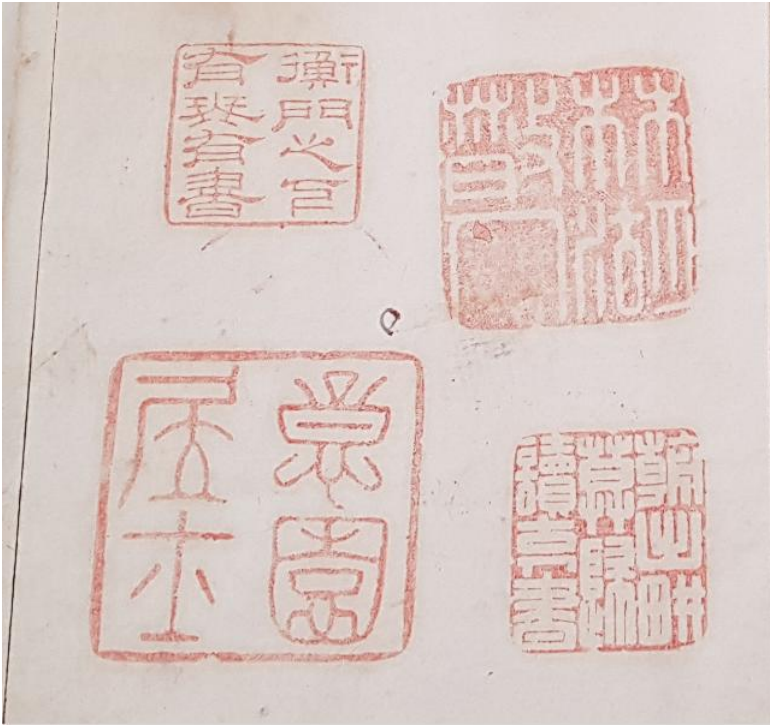
[도면3: 『해암인소(海巖印所)』 소재 유경종의 서문]



[도면4: 『해암인소』 소재 강세황의 서문]



[도면5: 『해암인소』 소재 유경종의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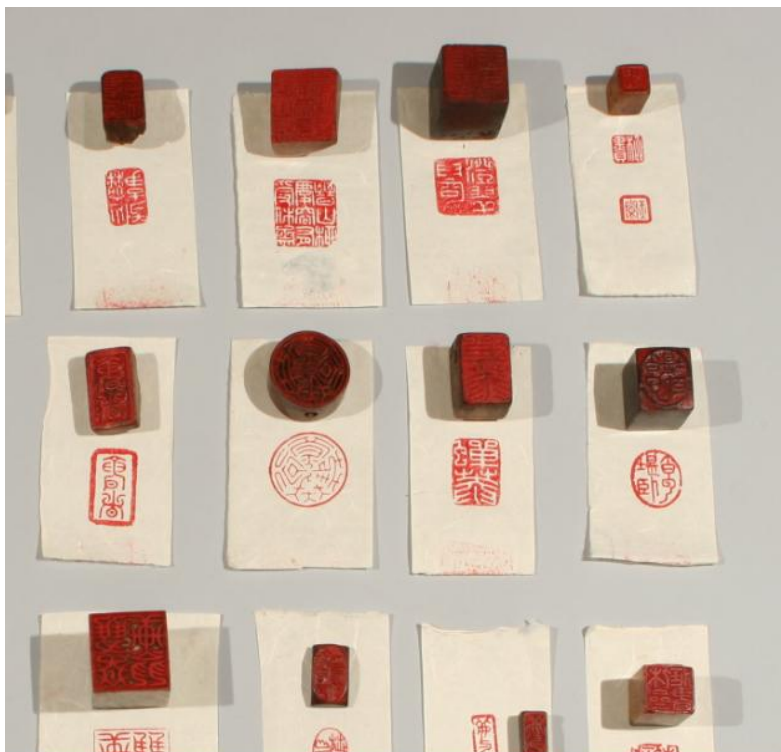


[도면6: 『해암인소』 소재 인영(印影)의 일부]



[도면6: 『해암인소』 소재 인영(印影)의 일부]

해암(海巖) 유경종(柳慶種) 가문의 인장(印章)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





[도면7: 진주유씨 기탁 성호기념관 소장의 인장 실물 사진]